

<서식 1>

사회봉사활동 계획서

수강 학기	2021/ 학년도 2 학기		신청일자	년 월 일		
과목	사회봉사 () 사회봉사(1) ()		분반			
학과	학과명 휴먼복지학부 노인복지학과. 주.야간					
이름			학번			
연락처	(집) (휴대폰) 010-9496-0547 (e-mail)					
봉사 기관 관련 사항	기관명	백천실버홈		운영주체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대표자	최 용 훈	설립 년도	2013 7.12	주요사업	노인 생활 복지
	전화 번호	053) 816-1018		Fax	053) 816-1019	
	주소	경북 경산시 삼골길 33 (백천동 292)		기관 담당자 확인	성명 최 용 훈 (인)	
기타 사항						
심의 결과	가 () 부 ()					

확정 사항	봉사활동 기관명		봉사활동 프로그램 및 내용	
----------	-------------	--	-------------------	--

이와 같이 사회봉사활동을 신청합니다.

2021/ 년 9 월 19 일

신청자 :

호산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3>

사회봉사활동 최종보고서

수강 학기	학년도 학기	강좌번호		
과목	사회봉사 (), 사회봉사(1) ()		지도교수	
학과 (학부)	학과명 휴먼복지학부 노인복지과 주, 야간			
이름			학번	
봉사 활동 내용	봉사기관			
	봉사활동			
	요일/시간			

다음 내용에 대해 A4 2매 정도로 작성하십시오.

- 봉사활동 전체에 대한 소감
- 봉사자 자신에 대한 평가
-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얻게 된 새로운 시각
- 봉사기관, 봉사활동내용에 대한 평가
- 봉사활동 과정 중 발생한 문제의 해결과정과 문제해결 결과
- 대학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제안 등

소개글

(자원봉사활동, 기관방문) 노인복지관 활동소감문

본문내용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너는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세기의 요정이라 불리며 세계적인 배우였던 ‘오드리 헵번’은 배우로서의 커다란 명성보다 더 큰 울림을 가지는 말을 남겼다. 젊은 시절, 시대를 대표하는 아름다움의 표상으로 여겨졌던 그녀는 나이가 들며 유니세프 홍보대사로서 아프리카나 낙후된 나라를 방문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환경 속에서 병들고 힘든 아이들의 구호에 혼신의 힘을 다해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타적 삶이 영화 속의 주인공보다 더욱 빛나는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그녀의 삶에 영감을 받은 사람이 많겠지만 나 역시 작은 깨달음을 얻어 봉사하는 삶에 대해 늘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언제나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한다. 더욱이 이번 봉사활동의 경우는 과제에 대한 부담감 또한 안고 시작하기에 수많은 생각과 걱정들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어떤 기관에서 어떤 종류의 봉사활동을 해야 할까?’, ‘이 봉사활동을 통해 나는 무엇을 얻고 다른 이에게는 무엇을 주어야 할까?’, ‘작은 행동이지만 나의 봉사활동을 통해 누군가에게 혹은 이 사회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많은 고민 끝에 내가 가진 강점을 활용하는 데서 시작하자는 결심

을 하게 되었다. 평소 주변 어르신들과 자주 어울리며 편안하게 소통하고 교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봉사를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른들을 공경하고 이해하는 마음’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부족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노인복지관련 기관에서의 봉사활동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한 첫 봉사활동 장소인 노인의료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 등록을 하며 인지활동 프로그램의 보조 임무를 맡았다. 의욕적으로 시작한 봉사활동이지만 또다른 의문들이 꼬리를 이었다. ‘나의 봉사활동이 저분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일일까’, ‘지금의 보조 교사 역할이 내가 배우고 있는 사회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 ‘지금 내가 보고 배우는 것들을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등 수많은 물음의 해답을 찾으려 했으나 쉽게 답을 찾지 못하는 시간이었다. 정답을 찾고 싶은 조급함에 나 자신에 대한 부족함으로 실망감이 생길 때쯤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 완벽한 복지제도가 없는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내 역할이 완벽할 수도, 완벽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낯설게 느껴졌던 이 곳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지고, 어렵게 느껴지던 어르신들이 친근해지면서,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주고 도와주는 일이 나에게 큰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다. 결국 나의 행동, 봉사활동은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행동이기에 내 삶을 더욱 의미있고 풍요롭게 만들고 있었다. 비로소 내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앞으로도 늘 고민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더 발전적인 ‘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이번의 짧은 경험을 통해 내가 느끼고 깨달은 소중한 ‘가치’를 늘 기억하고 되새기며 사회복지사로서의 길을 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